



지울 스님의 단식이 100일째를 넘기면서 극도로 건강이 악화되자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이해찬 국무총리, 강동석 건교부장관(왼쪽부터 순서대로) 등 종교계 지도자와 정부 관리들이 스님을 만나기위해 잇달아 정토회관을 방문했다.

생명 던져 생명 살렸다

지울 스님 총 241일간의 단식으로 '요지부동' 정부 움직여

"티끌처럼 낮아지고 가벼워져야 제 원력도 같이 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천성산과 함께 한 모든 인연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거두어주소서."

타협안이 마련되기 하루 전이자, 4차 단식 100일째를 하루 앞두고인 2월 2일, 지울 스님이 자신을 찾아온 조계종 총무원장 법정 스님에게 건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대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세상은 지울 스님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지울 스님만의 목숨이 아니라 온 생명의 울부짖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 천성산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2003년부터 합의에 이른 2월3일까지 네 차례, 모두 합쳐 241일간의 단식을 해 온 지울 스님은 결국 천성산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으며 버틴 시간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일까. 지울 스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했던 것일까. 지울 스님은 단식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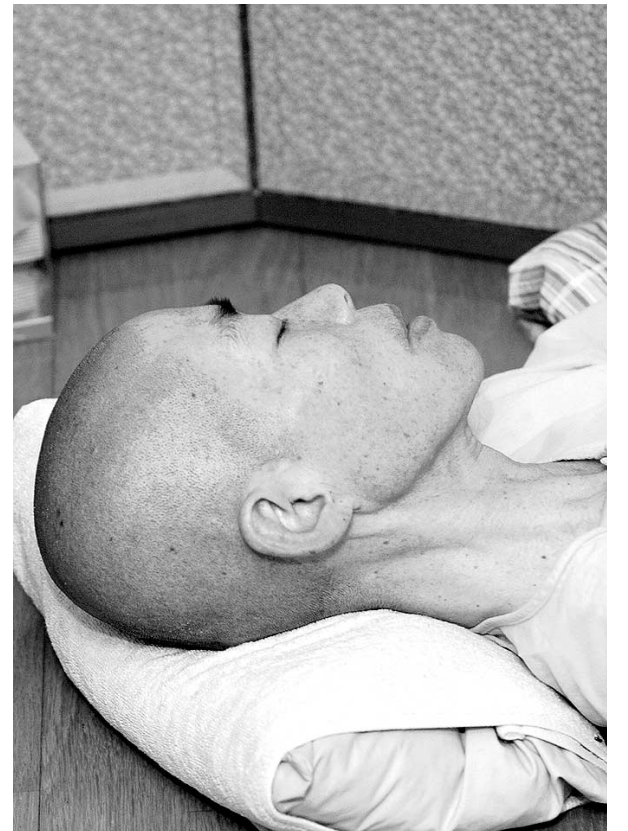
"바위를 깎는 포크레인 소리에 묻혀 작게 들리는 했지만 포석이 들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나? 살려 주세요...' 라는 소리요. 어린 아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늙은 어머니 신을 같기도 한 소리였지요."

천 가지 연꽃이 핀 것 같이 아름답다는 천성산. 98년 천성산 내원사로 들어가 참선수행을 하던 지울 스님은 2000년부터 산을 지키는 '산감' 소임을 맡았다. 그 뒤 천성산을 오르내린 것만도 400여 차례. 누구보다도 천성산을 잘 아는 지울 스님으로서의 망설임 없는 선택이었다. 지울 스님의 '생명평화' 실천은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고통스런 시간의 연속이었다. 단식 도중 밤늦은 시간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남들처럼 살면 안되겠느냐"며 흐느끼는 목소리에 눈물이 핑돌았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단식도, 주위의 냉정한 반응도 아닌 혈육의 정이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그만 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천성산이 울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울 스님의 단식을 환경문제만 생각했다. 지울 스님 하면 천성산이라는 등식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어디 그것뿐일까.

지울 스님은 외로웠다.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극히 적었다. 어떤 이들은 단식이라는 극단적 행동에 대해 이의도 제기했다. 거기에서 국가라는 권력과 개발요구라는 거대하고 엄청난 현실



지울 스님은 못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초인적인 단식을 진행해 왔다. 사진은 단식 100일째 기록을 일고 누워있는 지울 스님의 모습.

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지울 스님은 타협하지 않았다. 천성산의 못 생명을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 그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수행자의 다짐이었다. 지울 스님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권력과 힘의 논리에 때로는 빠져들고, 때로는 모른척하는 일부 환경단체들에게는 가슴 속 짐으로 지고 갈 명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을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마저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런 정부를 보면서 지울 스님은 천성산을 지키겠다는 천성산과의 약속이자 자신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행자는 정직해야 된다고, 그것이 진정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지울 스님의 단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되묻는다. 환경의 소중함, 인간의 순수성, 정직함. 이런 것들을 한 데 묶으면 결국 '우리네 삶'이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지를 지울 스님은 말없이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지울 스님은 늘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라"고 했다. 그것은 '나'를 떠나 '모두'를 보라는 애끓는 절규다. 지울 스님은 생명·평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성찰을 이끌어 냈다.

한명우 기자

눈·귀 가린 '空約정부'가 문제 키워

천성산 문제 왜 '막판'까지 가야했나

지울 스님이 우리 사회에 '생명'을 말하기 위해 곱기를 끊은 지 2월 3일로 100일째. 지울 스님의 간절한 호소가 요지부동이었던 정부를 움직였다. 2003년 2월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 백지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이후 네 차례 단식을 하며 천성산을 살려달라고 외쳐온 지 꼭 2년 만이다.

행방을 감췄다가 1월 31일 정토회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울 스님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조계종 종정 법정 스님이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을 통해 건강을 염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정 스님과 총회회장 법동 스님, 김상사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이해찬 국무총리, 오영교 행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 종교계 성직자들과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줄이어 정토회관을 찾았다. 2월 3일 저녁 타협안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상황이다.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긴 했지만 지울 스님이 100일 동안이나 단식을 하며 세상을 향해 '생명'이라는 화두를 던진 이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두고두고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공사 중단' 첨예한 대립

■문제점 드러나도 '국책 사업'만 강조=단식 100일째인 2월 3일까지도 정부는 '국책 사업의 중요성'만을 역설했다.

이해찬 총리,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박경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은 "지울 스님의 단식은 안타깝지만, 국책 사업이 흔들려서는



2월 2일 정토회관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정 스님(사진 오른쪽)이 도법 스님(가운데), 법륜 스님과 함께 지울 스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환경정책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에 발표된 법원의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처럼,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천성산 터널 공사도 과감하게 재검토할 수는 없을까?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었다.

지울 스님이 단식으로써 강변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습지와 동식물은 1994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됐으면 2002년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의 약속파기다. 2002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경부고속철도가 천성산과 금정산을 관통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공약(空約)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지울 스님이 부산시청 앞에서 시작한 1차 단식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2차, 3차 단식 역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믿음을 무드는 행동에 기인한다.

정부 일방적 약속 파기

■대응방식에 문제 있었다 =불신을 키운 것은 정부의 대응방식 때문이다.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지울 스님의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지울 스님의 1차 단식으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던 청와대는 지울 스님과 천성산 대책위를 제외시킨 채 노선 재검토위를 신설하고 '기존노선강행'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2차 단식을 부른 일방적 약속 파기였다.

이어 '도통농 소송'이 시작됐지만 정부는 재판 중인 사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지울 스님의 3차 단식을 부른 또 다른 형태의 기만이었다. 3차 단식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정토회관에서는 불자들이 도통농을 접으며 지울 스님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상황을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다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가 무섭게 독자적으로 천성산을 둘러보고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다시 공사를 강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뜻을 같이 했던 일부 환경단체들과 시민단체들도 지울 스님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지울 스님은 정부는 물론이고 환경단체마저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고 지울 스님은 백일간의 초인적인 단식에 돌입했던 것이다.

유철주 기자

조계사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교육안내

불교대학

① 교육과정 | 2년 4학기제

② 교육내용 | 근본불교, 대승불교, 불교사, 불교문화, 불전개설, 경전강독, 계율론, 포교방법론, 상담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와 사회, 선사상 등
+교과목은 부분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모집구분

• 주간반 | 월·화·오전 10:30~12:30
• 야간반 | 월·화·오후 7:00~9:00
• 토요일반 | 토·오후 3:00~6:00

불교대학원

① 교육과정 | 2년 4학기제

② 교육내용 | 종교의 이해, 경전 원문강독, 불교교리사, 비교종교학, 회암사상, 법화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아비달마철학의 이해, 불교의예의의 의미와 실천, 현대철학과 불교 등
+교과목은 부분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모집구분

• 주간반 | 월 / 오후 2:00~4:30
• 야간반 | 월 / 오후 7:00~9:30
• 토요일반 | 토 / 오후 3:00~5:30

2) 모집안내

① 응시자격

• 불교대학 : 조계종 소속 사찰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수자
• 불교대학원 : 불교대학(1년제 이상) 졸업자

②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대학 입학시 제출)
• 불교대학 수료증 사본 1부(대학원 입학시 제출)

③ 모집요강

• 접수 : 1월 31일(월)~2월 18일(금)
(인터넷 및 우편접수 가능)
• 등록금(매학기)
불교대학 - 40만원
불교대학원 - 45만원

④ 특전

• 매학기 장학금(성적 및 신행우수자) 지급
•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대학 졸업시)



조계사 교무국 720-1390 (www.jogyesa.org)



조계사